

[세월호 일지] 침몰부터 선체 직립까지 1461일간 기록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48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 지점에서 세월호 침몰(해경 발표 : 구조 174명, 실종 284명, 사망 6명)  
 ▲17일 박근혜 대통령 현장 방문(김정 합동수사본부 구성)  
 ▲18일 세월호 안전 침몰  
 ▲19일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3명 구속영장 발부  
 ▲23일 청해진해운 및 유영언 전 회장 징역, 금수령 등인수수색  
 ▲23일 세월호 관련 악성 유언비어 87건 적발 15명 검거(김철,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자 첫 구속)  
 ▲23일 최초 신고한 단원고생 시신 발견  
 ▲25일 민간잠수사 12명 투입  
 ▲26일 세월호 선박 직 승무원 15명 전원 구속  
 ▲26일 '다이빙벨' 현장 첫 투입 실패  
 ▲27일 정홍원 국무총리, 참사 책임에 사의 표명

◇2014년 5월  
 ▲4일 박근혜 대통령 사고현장 재방문  
 ▲6일 민간잠수사 시신  
 ▲7일 세월호 해기 수색요원 노출헬로 긴급수출(해경장차 대국민 사과)  
 ▲13일 유영언 전 회장 출석 등보  
 ▲15일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명 기소  
 ▲19일 박 대통령 세월호 참사 대국민화 발표(해양경찰청 해체 발표)  
 ▲21일 여아, 세월호 국경조사 합의, 청와대 포함  
 ▲22일 유영언 전 회장 구속영장 발부  
 ▲25일 여아, 세월호 특위 구성 완료, 위안양 심재철  
 ▲29일 세월호 진상 규명 국정조사계획서 국회 통과

◇2014년 6월  
 ▲2일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첫 개최  
 ▲10일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3명 첫 재판  
 ▲12일 유영언 전 회장 시신 순천서 발견(경찰이 해당 병차로 차기해 신원 확인 지시)  
 ▲26일 정홍원 총리 유영언 장관  
 ▲30일 세월호 국경조사 합의 보고 투입  
 ▲30일 유영언 전 회장 구속인 구원파아인도 일명 '산파미' 구속기소

◇2014년 7월  
 ▲1일 유영언 전 회장 친형 병설미 구속기소  
 ▲3일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발의  
 ▲9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시명, 국회 의원 178명 동참  
 ▲10일 박근혜 대통령, 여야 원내대표 세월호특별법 합의(16일 차기 합의(세월호 특별법 협상 결렬 본회의 무산)  
 ▲10일 유영언 전 회장 아내 권운자씨 구속기소(유영언 전 회장 친동생 병호씨 구속기소)  
 ▲14일 세월호 유가족경연대회 등 15명 특별법 제정 요구 단식농성 돌입  
 ▲15일 단원고 학생 46명 등 국회의사당 항해 도모행진  
 ▲21일 7월 임시국회 '세월호 특별법 TF' 재개도  
 ▲21일 유영언 전 회장 변호사제로 발원된지 40일만에 신원 확인  
 ▲21일 검찰 부실판결 진도VTS 해경 13명 전원 기소  
 ▲22일 DNA 대조 결과 비참으로 유영언 전 회장 사망 확인 발표(초대경 인신자검정, 부실수사 책임 지고 사퇴 제출)  
 ▲25일 유영언 전 회장 장남 대준씨와 도미 조력자 박수경씨 체포  
 ▲28일 일명 김 양파 김명숙씨, 윤건사 일회성 시위 부인과 함께 자수(유영언 전 회장 윤건사 일회성 시위 자수)

◇2014년 8월  
 ▲6일 검찰, 해운비리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해수부, 해운조합 관계자 등 총 43명 기소)  
 ▲7일 세월호 특별법 1차 합의안 발표...13일 본회의 의결  
 ▲19일 세월호 유가족, 합의안 반대 재발상 요구  
 ▲29일 유언 아내 김명숙씨, 단식 중(문재인 의원 단식 중단)  
 ▲30일 세월호 국조 특위, 활동 종료

◇2014년 9월  
 ▲1일 새누리당,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위위원회 3차 회동 결렬  
 ▲4일 유영언 전 회장 측근김태경 한국제약 대표 미국서 체포

◇2014년 10월  
 ▲6일 세월호 참사 수사 결과 발표  
 ▲14일 세월호법 후속 협상 재개-원내대표 회동  
 ▲28일 102일만에 세월호 295번째 희생자 수습  
 ▲31일 세월호 3법 '3+3 회동'서 타결

◇2014년 11월  
 ▲4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 회동...세월호 3법 7일 본회의 차기 재확인  
 ▲6일 '해운비리' 법사위, 세월호특별법·유영언 법원 법원  
 ▲7일 국회 본회의, 세월호 3법 일괄 처리  
 ▲11일 광주지법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나머지 선원 14명 징역 5~30년 선고  
 ▲11일 정부, 세월호 수색종료' 산전(세월호 탑승객 176명 중 172명 구출, 39명 사망, 실종 9명)  
 ▲18일 세월호 침몰사건 범정부대책본부 해체

◇2014년 12월  
 ▲27일 인천 세월호 일반인 회생자 합동 영결식

◇2015년 1월  
 ▲12일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5년 3월  
 ▲5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공식 활동 시작

◇2015년 4월  
 ▲1일 해수부, 세월호 피해자 배·보상 지급 기준 및 절차 착수 발표  
 ▲8일 해수부, 세월호 인양·보상 등 전체 비용 5천548억원 추정 발표  
 ▲10일 해수부 기술검토팀 TF '세월호 인양 기술적으로 가능' 발표  
 ▲22일 정부, 세월호 인양 결정 공식 발표  
 ▲28일 광주지법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 14명 징역 1년6월~12년 선고

◇2015년 5월  
 ▲1-2일 세월호 유가족 등 세월호 시행령 폐기 요구하며 청와대 행진-경찰과 대치  
 ▲14일 해수부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 및 선체 인양 추진단 헌법시  
 ▲15일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배상금 총 129억5000만원 첫 지급 결정  
 ▲22일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 입찰공고  
 ▲28일 국회 여야, 세월호 시행령 타결

◇2015년 6월  
 ▲4일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6개월 연장  
 ▲22일 세월호 인양 입찰 등록 마감, 7개 컨소시엄 참여

◇2015년 7월  
 ▲15일 해수부, 세월호 인양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상하이선박지 컨소시엄 선정

◇2015년 8월  
 ▲4일 해수부, 세월호 인양업체로 상하이선박지 컨소시엄 최종 선정

◇2015년 9월  
 ▲19일 세월호 인양 준비 작업 착수

◇2015년 10월  
 ▲29일 대법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 유죄 확정

◇2015년 11월  
 ▲12일 대법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 14명 징역 1년6월~12년 확정  
 ▲19일 법무부, 청해진 해운 등에 구상권 청구 소송 제기  
 ▲27일 대법 세월호 부실판결 진도VTS센터장 직무유기 무죄 확정  
 ▲30일 세월호 희생자생 가족 등 경기도교육청에 단원고 2학년 교실 존재 요구

◇2015년 12월

▲14-16일 세월호 특조위 1차 청문회  
 ◇2016년 1월  
 ▲12일 단원고 생존학생들 졸업

◇2016년 3월  
 ▲28-29일 세월호 특조위 2차 청문회

◇2016년 4월  
 ▲26일 세월호 특조위 인양 현장조사 재실시

◇2016년 6월  
 ▲12일 세월호 '뱃머리 들기' 착수 후 하루 만에 중단  
 ▲30일 세월호 특조위 공식 활동 기한 종료, 이점현 청와대 홍보수석 당시 KBS 세월호 보도 개입 복귀 촉구

◇2016년 7월  
 ▲29일 세월호 '선수 들기' 성공

◇2016년 9월  
 ▲1일 세월호 3차 청문회 시작  
 ▲30일 세월호 특조위 활동 공식 종료

◇2016년 11월  
 ▲1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주장  
 ▲11일 청와대 '세월호 7시간 동안 성명서와 의혹, 근거 없는 유언비어' 해명  
 ▲14일 정부,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 철거  
 ▲17일 JTBC, 세월호 참사 '역사적 사고'로 표현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공개

◇2016년 12월  
 ▲9일 한겨레, 박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일 '올림픽 마린' 손길 보도  
 ▲9일 국회, 박 대통령 탄핵안 기결, 세월호 유가족 40명 국회 발성  
 ▲28일 세월호 수사대 '자본', 디큐멘터리 세월호 X 공개, 잠수함 충돌 의혹 제기

◇2017년 1월  
 ▲경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발족식  
 ▲9일 세월호 1000일, 국회 축, '세월호 7시간' 등 준비하면 1500쪽 제출  
 ▲10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 세월호 7시간' 답변서 한차례 제출

◇2017년 2월  
 ▲9일 4·16 청문회 불출석 청해진해운 김한식 항소심도 무결정  
 ▲19일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의 첫 공식 활동  
 ▲27일 박 대통령 한때 초종종은 의연서 '세월호 참사 대응' 미용실 의혹은 사실 아냐

◇2017년 3월  
 ▲9일 특검 수사결과 발표 '세월호 7시간' 못 끝냈다  
 ▲10일 박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탄핵재판관 2명 반대, 세월호 당일 너무 불상실' 지적  
 ▲15일 해수부 '미수습자 3주기 전에 인양도 목표 하겠다' 발표  
 ▲16일 세월호참사 3주기 대회사 준비위원회 발족  
 ▲18일 해수부, 세월호 19일 인양 시도 발표 후 3시간만에 취소  
 ▲19일 세월호 시험 인양 연기  
 ▲22일 세월호 참사 1072일만에 시험인양 착수  
 ▲23일 물 위로 떠오른 세월호, 신미 랩트 열려 인양 돌발 변수  
 ▲24일 신미 랩트 제거 뒤 물 위 13m 부상, 반잠수선으로 이동  
 ▲25일 반잠수선 선적, 사실상 인양 성공  
 ▲27일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신청  
 ▲28일 해수부 '미수습자 추정 유골 발견' 국가수립인 결과 통보하며 '노란' 수습 방안 사전 합의 결정  
 ▲30일 조사위 세월호 기조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신청 심사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세월호 참사 1081일째 목포신항 도착

◇2017년 4월  
 ▲1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6일 육상 거처', 평형수 60t 배출 발표  
 ▲2일 선조위 세월호 무게 460t 줄이기 위해 27개 천공 결정  
 ▲9일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선 선박 90대 회선, 중점안  
 ▲9일 세월호 모듈 트랜스포터 하중 부하 1차 테스트 실패  
 ▲7일 2차 테스트 실패...모듈 트랜스포터 120대(총 600대) 추가 결정  
 ▲9일 3차 테스트 성공...600중장식 기동  
 ▲9일 만 1089일, 1090일째 세월호 육상 상륙  
 ▲11일 세월호 육상 거처 완료  
 ▲26일 세월호 우현 통해 3·4층 객실 첫 진입...미수습자 수습 기대

◇2017년 5월  
 ▲9일 침몰 해역서 사뭇배 추정 유해 발견...국과 수·위반  
 ▲10일 세월호 4층 선미 객실서 사뭇배 추정 유해 2명 발견  
 ▲13일 세월호 4층 선미서 온전한 선체 유골 발견  
 ▲15일 세월호 3층 일반인 객실 수색범위 확대  
 ▲17일 침몰 해역 유해 단원고 교장석 교사모 학인(2399명 희생자)  
 ▲19일 세월호 3층 수습 차야 등 하차완료로 확인

◇2017년 6월  
 ▲22일 세월호 3층 객실서 구명조끼 입은 유골 발견(이명숙씨 추정)  
 ▲25일 4층 선미 수습 유해 조은화환으로 확인

◇2017년 7월  
 ▲9일 지난해 22일 발견된 세월호 3층 선미 유해, 이명숙씨로 확인  
 ▲9일 세월호 3층 추방서 사뭇배 발견...11일 만에 추가 발견  
 ▲20일 세월호 1차 수색 완료...미수습자 5명 남아  
 ▲21일 세월호 내부 인양에 첫 공개

◇2017년 8월  
 ▲11일 세월호 화물칸 유해, 허다운 양으로 최종 확인  
 ▲16일 침몰해역 2차 수습 수색  
 ▲22일 침몰 해역서 사뭇배 추가 발견...총 6명 수습

◇2017년 9월  
 ▲1일 2차 수습수색서 유골 1점 추가 수습  
 ▲21일 선체 조사위 영공수조사서 침몰 원인 조사  
 ▲23일 조은화, 허다운양 목포신항서 영결식

◇2017년 10월  
 ▲13일 이명숙씨 목포신항서 영결식

◇2017년 11월  
 ▲11일 교장석 교사 목포신항서 추모식  
 ▲16일 세월호 미수습자 5명 가족, 대국민 기자회견  
 ▲18일-20일 목포신항 합동 우령제, 서울·인산 시 장례식  
 ▲22일 아난역 국무총리, 세월호 유골 발견 은혜 공식 사과  
 ▲24일 사회적 참사법 통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2017년 12월  
 ▲1일 세월호추진위 업무분장 해수부 전 정·차관 구속  
 ▲9일 선조위 세월호 선체 직립 공사 착공식  
 ▲21일 세월호 부두 안벽으로 평행이동 완료(5월 까지 직립 방침)

◇2018년 3월  
 ▲14일 선체 절단물 수색 과정서 사뭇 배 추가 발견  
 ▲22일 절단물 수색 과정 발견 배, 기존 수습자로 확인  
 ▲28일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보고 및 자시 사각 조작' 수사 결과 발표

# 4년의 기억 간직한 팽목항 · 목포신항

## 그날의 아픔 고스란히 간직

“세월호 참사 잊지 않게” 기다림의 항구 전남 진도 팽목항과 목포신항에는 4년의 기억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추모객들이 달아놓은 노란리본은 어느새 수천개를 넘어 노란물결을 이루고 있으며 세월호 조형물은 4주기를 하루 앞둔 15일에도 그날의 아픔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다.

팽목항과 목포신항은 박물관이나 갤러리처럼 지정된 전시공간이 아니다.

팽목항은 참사 당시 희생자 가족들이 모여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피붙이를 기다렸던 항구였으며 목포신항은 참사 3년만에 물로 올라온 세월호가 거처된 장소였다.

하지만 추모객들은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겨 희생자와 미수습자 죽을 위로를 하는 작은 마음이라도 전달하기 위해 노란리본을 매달았다.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뒤집어진 세월호'와 노란리본 상징 조형물'을 세웠다. 하나 둘씩 4년 동안 묘안 위로의 마음은 자연스레 함께 추모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팽목항 방파제 입구에는 “그날의 참사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다짐들이 모여 '세월호 기억의 벽'이 만들어져 있다.

4656장의 타일에 전국 26개 지역 어린이의 글과 그림이 새겨져 있다.

옆에는 '기다림의 의자'가 놓여져 있고 노란리본을 형상화한 대형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맞은편에는 미수습자의 사연이 담긴 '이제 그만



2016년 4월 16일 오전 9시께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승객 447명과 승무원 24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좌초된 가운데 구조대원들이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다. 이 여객선에는 수학여행에 나선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4명과 교사 10명 등 승객 447명과 승무원 24명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중이었다.

에 접어들었다. 국립해양안전관은 팽목항에서 500여m 떨어진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일원 10만㎡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 해양안전체험시설, 유스호스텔, 해양안전정원(추모공원), 추모 조형물 등이 들어선다.

오는 9월 건축 토목, 전기 등의 발주를 거쳐 빠르면 11월 공사에 들어가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관은 2021년 3월 예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국립해양안전관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팽목항 등

에 조형물이 그대로 보존된다”며 “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세월호 직립 이후 선체 활용계획이 수립되면 목포신항 외곽에 조성돼 있는 조형물 준치 방안도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목포신항이 국가보안시설이어서 조형물을 진도 국립해양안전관으로 보낼 지 지역에 있는 전시관 등으로 이전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뉴스

## ‘기억의 항구’ 팽목 · 목포신항 4년 전 아픔 여전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나흘 앞둔 지난 12일 전남 목포신항만, 철제 울타리에 내걸린 노란 리본들이 거센 바닷바람에 나부꼈다.

노란리본의 빛은 바래지만 추모의 마음은 온전했다. 리본에 새겨진 '아픔을 보듬겠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글씨는 뚜렷했다.

세월호 선체와 내부 잔해물의 흉측한 모습은 4년이란 세월을 오롯이 간직했다. 발걸음에 눈이 슬고 빛깔은 잿빛에 가까웠다.

이를 지긋이 바라보던 세월호 참사 희생자 단원고 2학년 5남 김건우군의 어머니 김미녀(48·여)씨가 말문을 열었다.

“세월호 탑승객 304명의 희생은 공동체와 국가를 보는 시각을 바꿨어요. 남은 미수습자 5명을 찾고, 이 같은 참사를 막을 사회 체계를 만들어야죠.”

김씨는 “지난 4년간 매 순간이 고비였고 사투였지만,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공감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가 어떻게 기울기 시작했고 왜 짧은 시간에 침몰했는지, 기계적 결함은 없었는지, 수밀 장치는 왜 열려 있었는지, 구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 규명해야 할 사안도 수두룩하다.

같은 날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도 가족의 간절함이 이어졌다.

팽목항 방파제에 매달린 노란 리본의 수와 추모객 발걸음은 줄었지만,

항구에 새겨졌던 참사의 아픔과 고통은 잊혀지지 않았다.

추모객들은 방파제 벽면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의 벽' 글귀를 하나 하나 읽어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희망의 등대 주변에선 '별이 돼 빛나소서'라는 리본과 함께 내걸린 종소리가 애처롭게 울려댔다.

등대 한편엔 “미안함에 노란 리본을 들어야 했다”는 초등학교생의 추모기도 놓여 있었다.

마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휴가를 내고 가족과 팽목 분향소에 온 박모(31·여)씨는 “4주기를 앞두고 처음으로 아픔을 찾았다. 늦게 찾아 미안하다. 잊지 않겠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서울에서 팽목항을 찾은 김모(33)씨도 “사회 전반에 퍼진 탐욕·불법·비리·안전 불감증·인권 경시 시가 세월호 참사를 일으켰지만, 사회는 아직 바뀐 게 없다”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